

# 거제시, 산업부 '합정 MRO' 공모 선정... 사업비 495억 확보

남해안권 초광역 프로젝트 시동  
美 등 글로벌 MRO 수주 토대 마련  
변광용 시장 "지역경제 새로운 도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중소조선 합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49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짓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경남(창원·통영·고성)과 부산, 울산, 전남이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권 초광역 프로젝트로서, 2026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495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45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합정 정비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거제시는 세계적 수준의 앵커 조선소를 보유한 이점을 살려, 남해안권 조

선 벨트 전체를 잇는 MRO 허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내 및 남해안권 중소 기가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MRO 공급망 플랫폼 운영 ▲미 해군 합정 정비 자격(MSRA, ABR) 인증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이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 등 글로벌 합정 정비 물량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닦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역설계, 고장진단 등 스마트 MRO 전문 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훈련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발판 삼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청의 '합정 MRO 클러스터 조성(방산 혁신 클러스터 2.0)'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두 사업이 연계될 경우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권 조선 벨트 전체가 설계·

건조부터 유지·보수, 부품 공급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해결하는 '완결형 방산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거제가 단순한 건조 기지를 넘어 글로벌 합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거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 조선·방산 거점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거제를 세계 최고의 합정 정비 특화 도시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충남도

#### '내포어린이병원' 본격 건립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인 '내포어린이병원'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지난 31일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용지(홍성군 홍북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포어린이병원은 도가 직접 건립하는 공공 의료시설로, 부지 6000㎡에 연면적 5326㎡,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다. 완공은 2028년 4월 예정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경주시

#### 내일 '대릉원 돌담길 축제' 개막

경주 대표 벚꽃 명소인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서 봄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가 열린다.

경주시는 '2026 경주 대릉원 돌담길 축제'를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머무르는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낮에는 거리예술 공연과 어린이·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밤에는 벚꽃길 경관 조명 '벚꽃 라이트'가 연출돼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포항시

#### 4일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개최

노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는 봄을 맞아 포항 대표 봄꽃 행사인 '포항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포항시는 '2026 포항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를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호미꽃해맞이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호미꽃에서 만나는 봄의 향연'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피크닉존과 캠핑존이 조성돼 봄 소풍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며, 버블쇼와 풍선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 전남도, 1250억 지역성장펀드 조성

광주시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에너지신산업·반도체 분야 등 투자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지역성장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광주광역시와 공동 선정한 통합시대를 여는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125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와 광주시는 모태펀드 자금 750억 원(전남 500·광주 250)을 확보했으며, 지방비와 민간 자본을 포함하면 총 1250억 원 이상이다.

지역성장펀드는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대책에 따라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 벤처모펀드(Fund of Funds)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모에서 두 시·도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국비 확보액을 극대화하는 성

과를 거뒀다.

펀드 조성에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여수·순천·광양·나주·해남 등 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기업과 농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거점 대학들이 출자자로 대거 동참했다.

펀드 운용 기간은 총 12년이다.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장기적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우주항공, 첨단바이오와 광주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도·대구시, 지역 청년 취업역량 강화

'2026년 합동 채용설명회' 성료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양 지자체는 지난 달 3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6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인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경북개발공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9개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인 i뱅크도 함께해 인재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는 지난 달 3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6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 울산시, 'AI 인재양성·AX' 가속화

AWS·울산대 등 MOU 체결

울산시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 업스테이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4개 기관과 '울산 AI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가 지난 2월 수립한 '울산형 AI 비전'의 후속 조치다. 지역 산업과 도시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 아래,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대·울산과학대는 AWS의 클라우드·AI 인프라를 활용

한 특화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AWS 교육센터도 구축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클라우드·AI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AWS는 글로벌 표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연구 지원, AX 가이드 제공을 맡는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산업 수요 기반의 AI·AX 교육 기획과 기술 협력, 현장 적용을 위한 멘토링을 담당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이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SK-AWS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부산시,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 채용

15일부터 필기시험 원서 접수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19개 기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4명을 채용한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부산교통공사 256명 ▲부산도시공사 13명 ▲부산시설공단 46명 ▲부산환경공단 44명 ▲벡스코 5명 ▲부산의료원 3명 ▲부산연구원 1명 ▲부산신용보증재단 2명 ▲부산경제진흥원 2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명 ▲부산글로벌도시재

단 2명 ▲부산사회서비스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4명 ▲부산문화재단 1명 ▲영화의전당 6명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명 ▲부산문화회관 5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3명이다.

원서 접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사천시, 재난안전관리 강화

사천시가 집중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시청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며, 태풍·호우 예비특보 등 기상특보가 예상될 경우에는 공식 운영 개시 전이라도 사전 가동에 들어간다.

대응 체계는 초기 대응과 비상 1·2·3단계로 나뉘는 4단계 구조로, 재난 규모에 따라 전 직원 비상 근무 체제로도 전환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